

한국민속학은 ‘당연’ 한 것을 대상화할 수 있는가?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지(2007~14년)를 사례로—

김현정

I. 머리말

동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 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연구 대상화할 수 있는 민속학이란 어떤 것이며 그 가능성은 무엇인지 논하기 위해 한중일 3 개국의 민속학자들이 모여 개최된 일본민속학회 2014년도 국제심포지엄 「“당연” 한 것을 묻다!—한중일 고층집합주택에서의 생활과 생활세계—」에서는 ‘살림살이’ 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다. 이 심포지엄을 기획한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弥)에 의하면 “일상생활이나 생활재 전체” 를 뜻하는 살림살이는 “실존적인 ‘생활세계’ 그 자체” 이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박’)은 관련 조사보고서 = 민속지를 간행하고 조사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있다 [2015: 210].¹ 즉, 민박의 살림살이 조사가 ‘일상생활’ 과 ‘생활세계’ 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생활 속의 ‘당연’ 한 것에 주목한 작업이라는 평가인데, “‘전승’ 이라는 연속성의 신화에 기초한” “보수적인 한국민속학” [南根祐, 2009: 5·6] 이라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큰 학문적 변화를 짐작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함의한 살림살이 조사에 대해서는 위 심포지엄에서 개괄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을 뿐 [이와모토 미치야, 2015; 정수진, 2015], 조사의 배경이나 목적, 민속지의 구체적인 내용, 한국민속학계 연구동향과의 관계 등이 제대로 검토된 것은 아니다. 또, 이 조사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종합적인 민속조사와 함께 이루어졌고 그 민속지 또한 동시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살림살이 조사의 의미나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답하는데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살림살이 조사를 포함한 일련의 민속조사가 어떤 변화를 함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민박이 실시한 기존의 민속조사와 조사보고서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새로운 형태의 민속조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민박의 활동내용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살림살이 조사 등의 민속조사와 22권의 민속지 기술 내용 및 방법을 통해 민속지가 갖는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살림살이 조사 등 일련의 민속조사에 나타나는 인식론·방법론적 변화가 작금의 한국민속학 연구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인접 학문분야를 포함한 중요한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찰해볼 것이다.

II. 과거지향적인 시선—국립민속박물관과 민속조사—

서울시 소재의 민박(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은 1946년 4월에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한국민속박물관’(1975),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민속박물관’(1979)으로 개칭·개편되었고 현 소재지로의 이전(1993)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2014년도 연간방문객수는 3,271,017명이며 운영경비 규모는 22,855,369천 원이다.² 민박은 민속기획과, 섭외교육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 유물과학과, 어린이박물관과로 분장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민속연구과가 박물관자료의 전문적·학술적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한다. 민속연구과가 주도하는 약 13억 원 규모 [국립민속박물관, 2014b: 2]의 민박 조사·연구는 현 소재지로 이전한 후 본격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박물관 자체의 연구진의 힘으로 민속 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6: 333] 이라 인식했던 민박은 1993 년에서 2002 년까지 10 년 동안 ‘장승·숫대 신앙’, ‘전통민가’, ‘재래시장’, ‘전통생활사(어촌)’, ‘통과의례’, ‘전통생업기술(농업)’, ‘동계당’, ‘세시풍속’, ‘무속신앙’, ‘묘제’, ‘재외동포생활문화’ 등을 주제로 한 민속조사를 도(道) 단위로 실시하였고 [연보, 1994 ~ 2003]³,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총 22 권 간행하였다 [연보, 2003: 140]. 이들 조사 및 조사보고서 내용으로부터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민속조사는 한 번에 1 ~ 10 일간, 총 1 ~ 7 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다시 말해 조사기간은 기본적으로 10 일 이하였으며 특별한 민속행사의 취재나 보충조사 등을 목적으로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쇠퇴·소멸의 위기에 처한 한민족 기층문화로서의 민속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강원도지역 재래시장조사’ (1993)는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전래의 상공업 체계가 와해되고 재래시장이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오랜 역사와 뿌리속에서 면면히 계속되어온 민속문화를 담은 그릇”인 시장을 조사하였다 [연보, 1994: 61]. 또 “한국 전통민속신앙의 일단을 규명” [연보, 1994: 60] 할 목적으로 시작된 ‘전북지역 장승·숫대 신앙조사’ (1993)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에도 이어져 “급속히 사라져 가는” [연보, 1998: 59] 동계당,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바탕” [연보, 1999: 79]인 무속신앙 등과 같은 의미가 부여된 조사항목에 따라 민속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민속조사의 인식적인 특징은 조사주체인 민박이 “도시화, 산업화, 서구화”로 인해 “위기시대”에 놓인 “민족이 갖는 고유한 생활풍속, 습속” 또는 “삶의 발자취” [이상은 연보, 1994: 3]인 “전통민속문화”의 “발굴과 보존, 전승” [이상은 연보, 1994: 10]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실시된 민속조사는 민박 외부의 연구자단체에의 위탁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6 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생활문화조사’는 한국문화인류학회에 의해 중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일본에서 실시되었다.⁴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자국 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확장된 시선의 끝에는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변이”, “동화되었는가” [연보, 1997: 85]라는 민족문화의 유래·정통성에 대한 관심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민박은 1993 년부터 10 년간 박물관의 독자적인 민속조사를 체계적이고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지역별·항목별 민속조사보고서를 축적해왔다.⁵ 그리고 이러한 민속조사의 목적이 근대 이후의 사회변동 속에서 쇠퇴·소멸될 우려가 있는 민속, 즉 ‘한민족’의 ‘기층문화’를 찾아내어 기록·보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시하는 일에 있었음은 상술한 바이다. 이러한 민박 민속조사는 “우리 민족의 기층적 생활문화” [민속학회 편, 1999(1994): 31]를 연구하는 학문이 ‘한국민속학’이라는 당시 민속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을 잘 보여주는 한편, “아직도 벽촌의 원시적 잔존문화만을 민속으로 규정”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생활 자체에는 추호도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 [이상은 金泰坤 편저, 1984: 43]던 “과거학” [44]으로서의 민속학적 시선에 대한 비판이 이미 1970 년대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라는 존재이유 (raison d’être)로 인해 잔존문화 = 기층문화의 구제에 몰두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III. '현재'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국립민속박물관과 국제교류—

2003년 이후 민속조사를 포함한 민박의 여러 활동들은 '민속'에 대한 종래의 과거지향적·고정적인 인식이 현재지향적·유동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속조사는 2003년 이후에도 '세시풍속', '통과의례', '건축의례', '묘제' 등과 같은 종래의 항목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에서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시작되었던 것을 이어받아 『한국세시풍속사전』 편찬 및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실시된 '세시풍속조사'가 그러하다 [연보, 2004: 62]. 그동안 민속학개론서나 민속조사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성탄절, 보신각 타종, 동해안 해맞이 행사(이상, 2003년 조사), 신정 세시풍속(2004), 졸업식·입학식(2005) 등을 "현대세시풍속" [연보, 2005: 70]으로 인식하고 조사 대상화한 것이다. 다만, 단오와 같은 이른바 전통적인 민속 조사는 민박의 학예사 등 연구직이 담당했던 데 반해 [연보, 2004: 64], 현대세시풍속 조사에는 사진가만 파견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보, 2004: 67; 연보, 2006: 80].⁶ 현대세시풍속을 민속학자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 행사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이기에 민속학 전문가가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그러했는지 그 판단의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근대 이후에 외래문화(종교)로서 유입되고 상업주의·매스미디어·사회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생산·변화하며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지금의 생활문화를 '한국'의 '민속'으로 대상화한 의미는 크다.⁷

'민속'에 대한 민박의 인식론적 변화의 배경에는 해외 연구자 및 박물관들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보인다.⁸ 우선, 일본의 국립민족학박물관(이하, '일본민박')과의 전시교류를 들 수 있다. 민박은 2000년에 우리나라의 '무속문화'와 '복식문화'라는 이른바 전통적이고도 항목적인 민속을 주제로 한일문화교류전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상대편 파트너가 된 일본민박이 현재의 생활문화를 다시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민박과 일본민박은 2002년에 '생활문화전'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천진기, 2002: 7·8]. 당시 학예연구관이었던 천진기⁹에 따르면 이 한일교류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는 자국 내 '전통생활문화사박물관'을 표방하던 민박이 "맥락"을 수반한 "생활문화"에 중점을 둔 "타문화 전시"의 노하우를 얻은 점이고 [천진기, 2002: 21], 둘째는 "실시간대의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한 "현재적 조사연구·유물수집·전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21, 인용문 중 강조점은 필자에 의함(이하 같음)]. 즉, '민속'은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타(민족)문화'는 일본민박이 담당하는 일본과는 달리, 타문화의 조사연구 및 전시를 수행할 마땅한 박물관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박이 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민속을 가지고 과거의 생활문화만을 전시 = 재현해왔던 종래의 방법과 시선이 눈앞의 현재로 옮겨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민박은 이후에도 외국의 박물관 및 관련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박이 주최한 '2004 Seoul ICOM-ICME Conference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국제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와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국제박물관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내 '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Ethnography)의 위원장 등을 초청한 일련의 활동들이다.¹⁰ 또, 2005년에는 미국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The Peabody Essex Museum)의 덴 먼로(Dan Monroe) 관장이 내관하여 '민족학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Ethnology Museums)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덴 먼로는

“전통 문화”(traditional culture)를 “규정하는 것”(pin down)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문화의 “혼성화”(hybridization)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역사적인 과거와 문화전통에 초점을 두”는 민족학박물관은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Monroe, 2005: 11·12, 32·33].¹¹ 이러한 해외교류 활동들이 민박의 현재에 대한 관심을 한층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¹²

IV. ‘살림살이민속지’의 탄생

민박은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역민속문화의 해’(이하, ‘지역민속의 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본고가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의 민속조사가 다루지 않았던 ‘살림살이’라는 새로운 대상·주제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민속조사에서 다루어졌고, 그 결과가 새로운 형태의 ‘민속지’(ethnography)¹³로 정리·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적인 삶의 형식”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민속의 해 사업은 민박과 지방자치단체(道)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연도의 전년도에 “민속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전시, 학술대회, 교육, 문화행사 등을 해당연도에 개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연보, 2009: 29]. 이러한 사업목적이나 활동내용은 ‘산업화·도시화로부터 지켜야 할 민속’이라는 본질주의적인 인식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승되어온 문화”라는 “전통” [한양명, 2015:135]으로서의 민속을 민박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찾아내 조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활용 = 자원화를 꾀한다는 계몽적·실천적인 자세가 이 사업에 담겨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안을 보다 기대했던 지방자치단체와 학술적 민속조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민박의 실천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정재, 2015; 허용호, 2015].¹⁴

지역민속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민속조사의 성과는 두 종류의 민속지로 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특정지역을 종합적으로 조사·기술한 것을 ‘지역민속지’, 특정가정의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조사·기술한 것을 ‘살림살이민속지’로 구분하여 부른다. 2007년부터 14년까지의 8년 동안 간행된 지역민속지는 총 16권, 살림살이민속지는 총 15권이다 (표 1).¹⁵ 또 2008년 이후에는 ‘도시민속조사’라는 별도 사업이 매년 실시되면서 이 조사에 기초한 도시(지역)민속지와 살림살이민속지(각 7권)도 상기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간행되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고려하여 검토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¹⁶

이 장에서는 새로운 민속지로서 ‘살림살이민속지’¹⁷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하는데, 먼저 ‘살림살이’란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해두기로 하자. 살림살이는 “한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 “집 안에서 주로 쓰는 세간”을 뜻하는 명사 ‘살림’에 ‘살이’라는 접미사가 붙어 생긴 단어로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 “숯가락, 밥그릇, 이불 따위의 살림에 쓰는 세간”으로 정의된다 [국립국어원 (발행연도 불명), online]. 즉 인간의 삶과 연관된 물질뿐만 아니라,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감”을 뜻하는 인간 “생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인 것이다 [국립국어원 (발행연도 불명), online].

민박이 간행한 민속지 이름을 살펴보면 (표 1), 살림살이는 2008년부터 등장 【②, ③, (⑤)】하며 07년에는 ‘생활재’가 쓰였다 【①】. 이 생활재라는 생소한 용어는 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사보고서)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김명호 씨댁 생활재

조사보고서』(이하, '반곡리생활재보고서')에서 처음 쓰였는데, 바로 이 생활재가 이후에 '살림살이'로 바뀐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반곡리생활재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의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전통문화'를 기록·보존할 목적으로 민박 주도로 실시된 인류학·민속학적 조사결과와 일치한다.¹⁸ 생활재조사를 담당한 김호걸에 따르면 반곡리생활재조사 방법은 상술한 2002년 전후의 일본민박과의 교류전시를 계기로 민박에 소개된 일본의 생활재조사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다 [2006: 18·19].¹⁹ 즉, 특정 공간 안의 "식물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식생도(植生圖)를 작성"하는 삼립생태학에 따라 한 가정 내 "생활재 보유·배치 상황"과 "가정경관"을 알아보는 "생활재생태학" [商品科学研究所+ CDI, 1993: 4], 또는 "물건"은 "말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토 고지(佐藤浩司)의 생활재조사 [2002: 104], 즉 한 가정이 보유하는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지극히 물질중심적이고 현재적인 실태 파악이 목적인 조사방법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반곡리생활재조사의 목적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보유하게 되는 각종 생활용품의 총체" [김호걸, 2006: 18]라고 정의된 '생활재'에 대한 "총체적 소개" [20]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는 생활재조사라는 기본적인 틀은 계속 이어졌지만, 조사와 민속지기술의 목적 및 방법은 차츰 변화하였다. 이 글에서 총 22권(2007~14)의 살림살이민속지 모두를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할 여유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본 생활재조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민박의 살림살이조사가 이후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떤 인식론·방법론적 특징을 갖게 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설명해보겠다.

첫째, 생활재 = 살림살이의 '보조자료'화이다. 즉, 일본 생활재조사의 특징인 '물질중심적'이고 '현재적'인 시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원래 한국민속학에는 없었던 '생활재' 조사라는 새로운 방법은 민박 조사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재라는 명칭²⁰ 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⑤), 13 쪽] 조사²¹ 인데 비해 그 민속학적 의미나 가치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는 '생애사' 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실마리를 찾게 된다. 예를 들어 반곡리생활재보고서에서 '생활재'는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기록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①에서부터는 눈 앞에 있는 물건 = 생활재라도 "현재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물품이라 말하기도 어렵"지만, 보유자의 "생애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다면 무의미하지 않다고 인식되게 된다 [(①), 12 쪽]. 즉 "인생의 한 지점을 기억"하게 하는 "물질적 증거" [(①), 20 쪽], 다시 말해 "생애사"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다 [(①), 12 쪽]. 이러한 인식론적 변화는 살림살이민속지의 구성에 잘 드러나는데, 가옥건물이나 방구조별 민속지의 목차가 만들어졌던 반곡리생활재보고서 이후에는 가계도나 가족소개, 조사대상 부부(혹은 그 중 한 명)의 생애사 등이 목차의 구성요소로 추가되게 되었다. 즉, 살림살이민속지에서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물건은 그 자체로서 "말" [佐藤浩司, 2002]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져야만 하며, 생애사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부여받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변한 것이다.

또 생애사 연구를 위한 보조자료로서의 살림살이에는 '자료'로서의 "객관성" [(⑩), 14 쪽]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⑩의 조사자는 조사에 필요한 물건 = 생활재의 구입시기 등의 정보²²를 보유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보유자 = 제보자뿐만 아니라 조사자 또한 "힘들"었다고 술회한다 [(⑩), 13 쪽]. 때문에 "눈에 번쩍 띄" [(②), 36 쪽]는 일기 등과 같은 기록을 발견하면 조사자들은 기뻐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록물들을 보유하는가 아닌가가 피조사가정의 선정기준이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②), ⑥, ⑩]. 이는 다시 말해 사람(보유자 = 제보자)의 애매한 기억에 의존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생애사 연구의 과학성을 구입시기, 용도 등과 같이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수반되는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물건이

지니는 — 지닌다고 기대되는 — 객관성을 통해 담보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둘째, 한 가정의 살림살이가 지역 및 국가의 역사·문화를 투영하는 것으로 해석된 점이다. 살림살이조사의 대상가정을 선정하는 일은 당해 조사의 질을 좌우한다고 여겨져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현 거주지역 = 민속조사지역의 ‘토착민’, ‘토박이’ 부부로서 오래된 가옥과 살림살이를 보유하는 가정이라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 [김호걸, 2006: 21] ①, 13 쪽, ②, 17 쪽²³이었던 것이 점차 세분화·구체화된 엄격한 것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비교적 지역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옥구조를 띠고 있는 집”, “가구나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가 평균 정도 수준을 갖춘 집”,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정한 가구”, “마을에서 주민들 간의 관계가 원만한 집” ③, 14 쪽], “생업이 농업인 농업종사자”²⁴, “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반적 재배작물을 재배” ⑭, 14 쪽], “일정한 규모”의 “생업에 종사”, “자녀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 ⑳, 26 쪽] 하는 집 등의 기준이 그러하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엄격함이 과학적 근거에 뒷받침된 엄격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교적”, “전통적”, “평균 정도”, “적정”, “일정한 규모”와 같이 조사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애매함을 질게 띤 표면적인 엄격함이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기준의 설정은 “마을의 일반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㉑, 25 쪽] 가정이라는 해당 지역 내 피조사가정의 애매한 “보편적 대표성” ⑭, 14 쪽, ㉑, 25 쪽]의 중시라는 시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한 가정의 살림살이는 보유자 개인과 그 가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규정하는 국가의 역사·문화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⑪, 14 쪽]. 이러한 ‘대표성’, ‘전형성’에 대한 집착은 이미 농업이 “대표적인 생업이 아니”며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 하는 지역에서 “농사 짓는 주민의 가정을 의도적으로 선정하거나 ⑨, 15 쪽], 총 27 호가 사는 마을에 독거노인 세대가 조사 당시 15 호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⑱, 12 쪽] 세대를 선별하는 것과 같은 민속학적 배제(排除)의 편향된 시선과 깊이 연관되어 눈앞의 현실을 보이지 않게 해버리고 만다.²⁵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조사대상가정의 살림살이가 지역 및 국가의 역사·문화의 “표본” ③, 12 쪽]으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살림살이를 보유하는 가정이 ‘부부’ 중심의 이상적인 가족을 상징하는 것처럼 기술되는 부분이다. 살림살이민속지가 ‘생애사’를 중시하게 된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다. 하지만 생애사라는 방법의 도입이 ‘개인’ —으로서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피조사가정의 주인공은 ‘부부’이지만, 이미 독립 또는 출가한 자녀나 손자들과의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부부생활의 전제가 되어 2~3 세대 가족의 화목한 사진들이 대부분의 민속지에 거의 관례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반곡리생활재보고서, 26] ①, 19 쪽, ②, 28 쪽, ③, 21 쪽, ⑦, 29 쪽, ⑩, 21 쪽, <⑬>, 15 쪽, ⑭, 41 쪽, ⑮, 22-23 쪽, ⑯, 21 쪽 등]. 이러한 조사자의 시선은 화교나 다문화부부와 같은 종래 민속조사에서 대상화되지 못했던 새로운 대상의 설정과 조사, 민속지 기술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²⁶ 즉, “행복한 Standard 화교 가정”, “책임감 있는 가장”, “현명한 ‘가족 코디네이터(인 아내이자 엄마)”, “튼튼한 큰 아들”, “사랑스러운 막내”라는 이상적인 가족상의 재현·확인·구축이다 ⑯, 20 쪽].

V.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지’라는 굴레, 학제성이라는 가능성

이상에서 살펴본 민박에 의한 살림살이민속조사 및 민속지의 특징들은 어디까지나 물질중심적이고 현재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일본의 생활재 조사연구가 인식론·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한국민속학의

민속조사 및 민속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토착화(localization)²⁷ 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생애사라는 '구술'을 통해 물질에서 "정신적 요소"【①, 20 쪽】를 추출하려 한다거나, 보조자료화된 물질을 가지고 민속조사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려 하거나, 물질에 "타임캡슐"【③, 14 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기록하거나, 개별 가정의 물질적인 것들을 지역·국가의 역사·문화에 대한 대표성·전형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려는 등의 방법과 시각이 그러한 변화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국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박물관'이라는 포지션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²⁸ 즉, 국가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신분의 학예사가 중심이 되어 조사를 실시하는 이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대상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이 주로 민속학자들이 생산해온 '지역성'이라는 애매하고도 표면적인 '객관성'과, 그러한 지역(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민속이라는 '대표성'과 '전형성'의 논리였던 것이다. 또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선별된 한국의 생활문화를 전시한다는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수많은 국내 지역들을 대표하거나 전형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가족·장소 안에서 객관적인 전시자료를 찾아내도록 이끌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련의 민속지들 중에는 현재의 생활문화, 즉 민속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 조사 및 민속지 기술도 적지 않다. 이는 살림살이민속지보다 지역민속지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3이다(표 1). 이 민속지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자가 머문 2~10월 사이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해 조사자가 관찰한 것들을 가능한 그대로 기록한 결과로서 쓰여졌다【9 쪽】. 예를 들어 제 2장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산 심포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마을사람들의 이질성이다. 마을 = 지역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거나 추구하는 종래의 민속조사와 민속지 기술 속에서 쉽게 무시되거나 축소되어 버린 이질적인 존재들, 예를 들어 일제시대, 해방 후, 최근에 걸쳐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사람, 마을 내 빈집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 도시이주에 실패해 귀향한 사람들처럼 마을에 새로 또는 다시 이주한 주민들의 이동과 정착을 토착민들의 움직임, 생각 등과 연관지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35-69 쪽】. 또 제 5장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행사들'에서는 설날, 정월대보름, 당산제와 같이 전통적인 민속조사의 대상이었던 행사들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식이나 심포마을 주민들의 많은 수가 신자인 교회의 부활절 등 사회제도와 외래종교와 관련이 깊은, 이른바 근대 이후의 행사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조사·기술하고 있다【167-233 쪽】. 민속조사 이전에 이미 '민속'이라 규정된 항목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민속지가 쓰여지는 것과는 다른 이러한 민속조사와 민속지는 철저히 '현재'의 '생활'에 초점을 맞춰 그 맥락과 함께 기록하는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ギアーツ, 1987: 3~47】.

이러한 '현재'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민속조사에서는 대상화되지 않았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민속학이 '민속'이라 규정해왔던 것들에 의문을 던진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은 흥미롭다.

아이들은 산촌에 살고는 있지만 부모세대의 생업활동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추농사에 대해 부모가 하는 일이라는 관념 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또 마을의 산제 등의 공동체 활동이나 부모, 조부모 세대의 신앙의례, 세시풍속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등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중략) 기존 세대들도 자연히 자신들의 풍속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다【4, 72·74 쪽】.²⁹

생활의 주체에게 ‘익숙한 것’ 이야말로 현재의 삶 = 생활 그 자체이고, 민속학은 이러한 생활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한국민속학은 “기층문화” [민속학회 편, 1999(1994): 31; 최운식 외, 1999(1998): 37; 최인학 외, 2001: 16 ~ 18]의 “발굴” [김선평 외, 1996: 11]에 학문적 목적을 두고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것’ 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즘의 길을 걸어온 점을 고려할 때 위에 인용한 조사자의 관점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다지 요리를 하지 않는 맞벌이 주부(엄마)와 요리를 즐기는 남편(아빠), 외식이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하는 일이 많은 고등학생의 식생활 【(5), 212-216 쪽】,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완견 배설물의 방치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각종 경고·권유문 【(5), 242 쪽】, 혼자 사는 노인들이 손자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애완동물 【(5), 252 쪽】 등과 같은 현상들은 지금 여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삶 그 자체이며,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일상” 【(5), 262 쪽】이지만, 이러한 “현실” 이야말로 “민속” 【(5), 261 쪽】이라는 인식이 민박의 민속지에 새로운 시각과 대상을 가져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민속지가 가능했던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지역민속지의 조사·집필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속지 3의 조사·집필자는 근대사, 4는 한국의 여성(젠더)사와 문화지리학, (5)는 인류학·민속학(러시아)을 전공했는데, 그야말로 학제적인 구성이다.³⁰ 사실 이러한 학제성이 민박 연구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관건으로는 이 학제성이야말로 “종종 신화, 전설, 이야기, 속담, 수수께끼 등 구전되는 이야기 (folklore)” [괄호는 원문]나 “민중 혹은 서민의 전통적인 풍습”이라 정의되는 “(실) 생활과 떨어진 파편” 과도 같은 “민속” 만으로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생활과 의식형태를 온전하게 이해” 할 수 없다는 인접학문으로부터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김광억, 1996: 12].

VI. 「현재」 「변화」 「개인」

민박의 살림살이조사에 큰 영향을 준 일본의 생활재조사는 한국의 민속학자들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주영하, 2001a·2001b; 강석훈, 2011]. 2002년에 일본민박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현대 한국사회의 생활문화 연구와 그 방법: “2002년 서울 스타일—이선생님택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 전을 통하여’에 발표자로 참가했던 주영하는 당시까지 “주생활이나 소비재에 대한 연구를 결코 그들(일본의 생활재연구자들)처럼 수행하지 않았던 한국인 학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며 일본 생활재 조사방법에 처음 접했을 때의 상황과 느낌을 표현하였다 [주영하, 2008: 145]. 또 같은 방법을 경기도의 식생활 조사 때 활용했던 것에 대해 “냉장고에 들어간 물건만을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연구결과, 다시 말해 유효한 “문화적 해석”은 한정적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이후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영하, 2008: 145].

이러한 살림살이조사의 어려움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단지에서 주거공간 활용의 특징과 각 공간 안에 자리한 “주생활용품” [2003: 2]을 조사한 김정미의 연구를 통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민박과 주영하의 조사와는 달리 일본 생활재조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이 연구는 주거학, 가정(家政)학,³¹ 사회학 등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서구근대화된 한국의 고층집합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국적 주거관념이 어떠한 지속과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정미는 이 연구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조사 가능한 세대를 찾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되는 등 상당히 고생을 한다. 그리고 겨우 35 세대가 조사를 수락하지만 지면을 통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조사 외에 면담 등에 대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진촬영의 경우 대부분이 거부를 하여 모든 방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3 세대에 지나지 않았다 [9 ~ 11]. 이 연구는 가족과 주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의 거실의 상징성과 자녀방의 확대 및 중시 등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주영하가 지적한 생활재 = 살림살이 = 주생활용품 조사의 어려움이라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살림살이조사는 현재로서는 민박에 의한 민속조사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³² 조사방법의 난점 외에도 소개·도입된 시기가 비교적 짧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는 있지만, 지금까지 기층문화의 규명이야말로 민속학 최대의 사명이라는 신념 아래 ‘과거’에 맞춰졌던 많은 민속학자들의 시선을 ‘현재’로 향하게 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삶 = 생활의 일부로서 ‘당연’하게 눈앞에 놓여있는 물건들에 주의를 환기시킨 점은 분명하며, 그 의의는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한국민속학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져 왔으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민속학에서는 1970 년대에 김태곤을 중심으로 ‘현재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³³ 김태곤에 의하면 한국민속학이 “민속을 < 잔존문화(殘存文化)> 나 < 민간전승체(民間傳承體)>로 규정해온 종래의 견해”는 “민속을 과거적인 문화”의 “정체현상으로 보았던 착오”였으며,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나 현대문명 속에 살고 있는” “다대수(多大數)”의 사람들의 “생활 일체”를 민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金泰坤, 1984: 57].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민속학의 기본 목적은 한민족의 연구”이며 “민족 구성원의 다수 보편적이면서 핵을 이루는 기층적 구성원”인 “민간인” [22]의 문화를 “민족의 기층문화” [23]로 보고 “민족적인 긍지” [163]를 키우는 민속학³⁴이라는 인식을 고려할 때, 김태곤의 현재학 논의가 당시 한국민속학의 지배적인 사상에 대한 근간적인 변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민속학” [72]이라는 발상을 내포하며 “민속을 ‘현재학’의 대상” [이기태, 2013: 106]으로 논의한 점은 지금의 한국민속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후의 한국민속학자들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음미하고 논의를 거듭하여 한국민속학의 바탕이 되는 주요 인식론·방법론으로 발전시켜야 했는데, 아쉽게도 이 같은 주장은 일부 논자를 제외하고는 주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지속적인 논의의 심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강정원, 2003: 49; 이기태, 2013: 131].³⁵

한국민속학에서 ‘현재’와 관련된 문제는 ‘도시민속학’의 맥락에서 검토되었다. 사실 ‘마을’과 ‘도시’라는 구분 자체가 ‘현재’를 대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岩本通弥, 1978: 43·52], 마을민속의 변화—쇠퇴와 소멸—에 대한 자구책과도 같이 궁리된 도시민속학론은 “도시민속이라는 연구영역”을 규명하기 위해 “도시라는 공간을 설정”해야만 한다는 [박환영, 2011: 157], 다시 말해 ‘마을’ 민속학과는 별개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설정되어 논해지는 경향이 강하였다.³⁶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현재학’이 아닌 ‘도시민속학’의 인식적 범주 내에서 논의되어온 까닭은 “전통적 민속현상” [강정원, 2003: 35]에 대한 연구야말로 한국민속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는 의식과 관계가 깊는데, 즉 원래 (original) 민속이 있고 그 후에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변화’ = 현실을 ‘도시’라는 틀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민속학이라는 아카데미즘의 존재이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다.

도시민속학적 연구도 보이지만 [2006], 한국인의 식생활을 중심으로 현재의 생활문화를 민속학의

주요 과제라 주장해온 대표적인 민속학자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주영하이다 [2001a; 2002b; 2007] . 그에 따르면 한국민속학의 의식주 연구는 잔존물에 대한 물질연구로서 자연과학 연구자와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졌고 물질의 역사적 변화연구라는 방법이 민속학적 특징으로 여겨졌다 [2007: 218·219] .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구된 의식주는 지금 “전문가의 지식”이나 “과거의 민속지식”으로서 “교육”과 “관광”의 현장에서 “소비”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2007: 223] . 주영하가 일본의 생활재조사법을 이용해 밝혀낸 한국인의 식생활의 현재에서는 김치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김장을 하지 않게 되었거나, 김치 같은 저장음식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김치냉장고가 필요 없거나, 60 세를 넘긴 부부와 동거하는 딸 사이에 식사와 관련된 갈등이 끊이질 않거나, 요리법이 엄마·딸, 시어머니·며느리와 같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통해 얻어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1a: 254 ~ 259; 2001b: 314·315] . 이렇게 변수가 많은 현대 한국사회의 식생활연구를 통해 주영하가 주장하는 의식주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란 “연령·직업·지역”³⁷에 따른 다양성”과 “근대적 변용”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실재 삶”을 밝히는 작업이다 [2007: 224·225] .

의식주를 포함하는 생활문화의 현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개인’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한 문화인류학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 특히 그 바탕을 이룬 것이 2002년부터 시작된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05)와,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의 재구성’ (~05)·‘가까운 옛날: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05~08)(이하, ‘민중생활사’)이라는 공동연구(현 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이다. 주로 문화인류학, 주거학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연구와 문화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민중생활사’ 연구 모두 보통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영위되고 익숙한 것들이어서 진부하게 느껴지는 “일상생활”을 규명해야 할 연구대상으로 삼고 [문옥표(발행연도 불명) online; 함한희, 2008: 11] , ‘보통 사람들’, 즉 삶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며 그들에 대한 기록—생애사와 관련 사진 등—을 디지털 아카이브화³⁸ 하고 있다.³⁹

이러한 공동연구의 성과들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아파트 세대 안에 설치되는 서구식 부엌(kitchen)의 한국적 변용에 관한 연구이다 [함한희, 2002; 윤택림, 2004] . 한국의 주택건축기술의 발전, 주택·부엌의 근대화·서구화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 등을 검토하면서 1945년부터 현재까지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연령·출신지·학력·가족구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조사대상가정의 주거공간, 특히 부엌을 면밀히 살핀 윤택림에 의하면, 언뜻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을 경감시켜줄 것 같은 서구식 개방형 부엌은 한국의 주부들에게 언제나 깨끗하게 부엌을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윤택림, 2004: 36] . 1970년대 이후 가전제품이 다양화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시판되는 반찬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주부들의 가사일이 줄지 않는 까닭은 부엌 일은 —서구식 키친 일도 여전히— 여자가 할 일이라는 의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31~38] . 이렇듯 보통 한국사람들이 당연하게 쓰는 물건들과 그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당사자로서의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의 집합적 가치관 및 문화적 구속성과 부딪히고 교섭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VII. 맺음말

2015년 5월, 지역민속의 해 사업 10주년을 기념하여 민박은 한국의 중견 민속학자들을 모아 '지역과 함께 한 국립민속박물관 10년, 성과와 반성'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러 비평들 중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통적인 민속지에 비해 '현재'에 중점을 둔 민속조사·민속지 기술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한국민속학의 "정체성은 민의 문화 가운데서도 특히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문화를 해명하는 데 있다" [한양명, 2015: 152]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민속지에 관해서는 "너무 현재적" [이기태, 2015: 199]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민속의 해 사업과 도시민속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된 민박의 지역민속지와 살림살이민속지는 보조자료화된 살림살이 자료에 대한 객관성의 추구, 피조사가정의 선별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성·전형성의 중시 등과 같이 재고할 필요가 있는 일련의 문제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을 담아내고자 한 시도로서 전통적인 민속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민박의 국제교류 증가, 타문화에 대한 관심확대, 민속조사자·민속지생산자들의 학제성이 있었음은 이미 지적한 대로다.⁴⁰ 그러나 이같은 변화로 인해 한국민속의 조사연구를 담당해야 할 —한다고 여겨지는— 민박의 민속지와 문화인류학의 민족지(ethnography) 사이의 구별이 어렵게 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문화"의 기술이 적고 "너무 현재적"이라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 민족문화"의 연구가 한국민속학의 중심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강정원, 2003: 44 ~ 48], "한국 민속문화의 지속성" [51]을 밝히는 연구를 중시하는 관점이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문화학" [南根祐, 2009: 23]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 한국민속학의 성과를 비판·부정하는 주장이 쉽게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필자 또한 '민족주의', '본질주의'를 앞세운 비판을 위한 비판에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근대 이전' 또는 '전통'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민속'이 무엇인지 규정짓는 일은 한국민속학을 점점 더 고고학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동향, 예를 들어 '짜장면' [김만태, 2006], '크리스마스' [염원희, 2013], '노래주점' [김문겸, 2013]이 현재 한국인들의 식생활·세시풍속·유흥문화에서 어떻게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이 되었는지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당연한 것" [岩本通弥, 1998: 29·30]을 대상화하는 문제의식과 한국민속학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우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고 싶다. 이 글이 실린 학술지는 『일상과 문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 "일상"이란 '의식주'에 국한된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구성되는 "정치성" [정수진, 2015: 287]을 경시·무시한 개념도 아니다.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람" [강정원, 2003: 62]이 민속학의 궁극적인 연구대상이라면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당연'한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학의 연구대상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제도·정책, 과학기술, 매스미디어, 상업주의 등과 같이 로컬(local)/내셔널(national)/글로벌(global)의 각 수준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사회·문화 변동에 의해 나날이 갱신되고 있는 인간생활의 현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물어 밝히는 작업이 민속학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注

- 1 이와모토는 “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곳에서 살림살이 조사가 이루어졌 ” [2015: 211] 라고 하였으나 이 사업에서의 민속조사는 원칙적으로 농촌과 어촌 두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단, 같은 해에 ‘도시민속조사’ 또한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상지역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 2 연간 방문객수는 『민속연보 2014』 [국립민속박물관, 2015: 32], 경비는 민박 민속연구과 정영학 학예연구관 [2015/10/27인터뷰]의 제보에 의한 자료이다.
- 3 이하, 민박이 간행한 『민속연보』를 인용할 시 [연보, 발행연도(와 쪽수)] 라고 표기한다. 연보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 4 ‘제외동포생활문화조사’는 2004년 멕시코(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2005년 일본 관동지역(한국문화인류학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연방(2003~06)에서의 ‘한민족생활조사’나 ‘중국소수민족혼례문화조사’(2007~09) 등의 해외조사에는 민박의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외 전문가와 공동조사하였다. 이는 민박의 해외유학 경험자들을 포함한 조사연구자의 증원 및 다양화와 관련이 있다.
- 5 이 글은 민박이 현 소재지로 이전(1993)한 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전에도 민박에서는 민속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민구·농구·어로도구 등에 대한 ‘민속자료현황조사’(1982~85), ‘민간신앙 및 관례, 혼례조사’(82~86), ‘위도의 민속조사’(82~86) 등이 그렇다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6: 167~195]. 이 중, 위도의 민속조사는 『蠓島의 民俗—堂祭(鑛里 및 食島), 家神信仰, 歲時風俗, 通過儀禮篇—』(1987), 『蠓島의 民俗—大里願堂祭篇—』(1984), 『蠓島의 民俗—喪·祭禮, 葬制, 民間醫療, 民謠, 說話篇—』(1985)의 일련의 총서로 간행되었다. 개관 이전의 민박에는 “관장과 과장을 포함해 학계연구직이 7~8명에 불과해 학술조사를 추진하기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개관 준비자료 수집 등의 조사만을 진행”하였다 [연보, 2003: 137].
- 6 단, 신정 세시풍속 조사에는 관외 민속학자 등도 참가하였다 [연보, 2005: 70].
- 7 현대한국의 종교인구(2005년 현재)는 불교 약 43%, 개신교 약 35%, 천주교 약 21%를 차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편, 2012: 9] (백분율은 필자 산출), 서구에서 유입된 외래종교인 기독교는 절반 이상의 한국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무속이나 불교와 달리 한국민속학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국세시풍속사전』에서 “현재 성탄절”은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인 대부분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세시” [강정원, 2006: 349] 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현재”를 민속학적 관점 속에 포섭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8 민박이 “본격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타문화를 조사·연구”하며 관련자료를 모을 수 있게 된 것은 “2002년도 해외교류전시의 예산이 확보”된 이후이다 [천진기, 2002: 7].
- 9 현재 민박의 관장(2011~)이기도 하다.
- 10 2009년에도 ‘ICOM-ICME 2009 Seoul Conference 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 서울총회’를 주최하였다. 단, 2004년도 회의 명칭이 수정되었다.
- 11 한글로 번역된 표현 중 부자연스러운 것은 수정(직접 번역)해서 인용했다.
- 12 천진기는 덴 먼로가 민박 전시에 대해 “근대화 현대의 한국 문화를 다루어 줄 것을 제안”(인용문에서 “화”는 “와”의 오자)한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근현대를 배제”한 “전통문화”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였다 [천진기, 2007: 299·300].
- 13 이 글에서 ‘민속지’란 “어떤 문화나 사회에 대한 기록과 분석”이면서 “주로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 장소, 혹은 집단에 대한 기술”을 뜻한다 [Coleman and Simpson, n.d. online]. 또, ‘민속지’로 번역하지 않는 이유가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의 구분 때문은 아니다.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를 ‘기술’한다는 의도에 ‘민속지’가 더 어울린다는 전경수의 주장에 동의하기

- 때문이다 [1990: 137·138]. 이처럼 민속지를 규정하면 민박의 살림살이 조사보고서 또한 그 기술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살림살이민속지'라 할 수 있다. 단, 타민족(문화)연구를 위해 쓰여지는 (문화)인류학의 ethnography는 '민족지'라 번역하겠다.
- 14 민박이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국가 대표 생활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연보, 2008: 32] 라는 2007년에 공표된 민박의 비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민박이 발행하는 민속연보를 창간호(1994)부터 살펴보면 ‘생활사’를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은 산견되지만, “국가 대표” 생활사박물관이라는 분명한 공표(announcement)는 “연 200만 명의 관람객과 그 절반을 상회하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람객”을 의식한 제14호부터 나타난다 [2006: 2]. 또 “지역과 더불어 성장한다” [2008:29]는 슬로건을 걸고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구축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발행연도 불명), online]. 즉, 지역민속의 해 사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생활사박물관이라는 민박의 역할·기능의 강화 목적과 무관하지 않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 15 2014년에는 경기도에서 민속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민속지는 현재(2015) 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글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 16 표1을 보면 2008년에 4권의 『도시민속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고 09년에는 없다. 이는 표1이 ‘간행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2007년에 조사하고 08년에 간행된 것이 (5)와 (4)이고, 08년에 조사하고 같은 해 12월에 간행된 것이 (6)과 (5)이다. 즉, (6)과 (5)는 예정보다 빨리 간행되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하에서 표1의 민속지자료를 인용 또는 참고할 때에는 【목록번호, 쪽수】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 17 ‘살림살이’를 대상으로 한 민속지는 민박뿐만 아니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와 『향촌민속지』 등을 간행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등도 시도한 적이 없다. 한국의 민속지에 대해서는 李京燁 [2003: 248~251]을 참고할 것.
- 18 한국토지공사가 민박에 발주한 용역 ‘행정중심도시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사’는 사업기간 2005년 9월 8일~06년 11월 8일, 총사업비 약 15억 6천만 원으로 실시되었다 [연보, 2006: 87]. 조사결과는 조사지역 및 그곳 거주주민 가정의 생활제에 대한 조사보고서(표1) 외에 영상민속지, 민가조사보고서 총 4권으로 간행되었다.
- 19 한국의 유사한 조사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반곡리생활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생활제’ 조사라는 기본적인 인식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김호걸이 약 1쪽에 걸쳐 직접 인용한 일본의 『생활제생태학Ⅲ』 [商品科学研究所+CDI, 1993: 3·4]의 영향이 크다.
- 20 ‘생활제’는 일본어 용어인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민속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아온 한국민속학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 [(5), 10쪽]. 이에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살림살이’, “세간”, “가재도구” 등으로 바꾸어 부를 것이 제안 [(3), 13쪽] 되어 2008년에는 ‘생활제’와 ‘살림살이’가 병용되었지만, 이후 민속지 표지 등에 기재하는 공식명칭은 ‘살림살이’로 통일되었다. 물론 저자에 따라 본문 중에 병용 [(7), 16쪽]하거나 “세간살이” [(17)]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 21 농어촌 가정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조사표우송 방식을 채택했던 상품과학연구소+CDI의 조사 [商品科学研究所+CDI, 1993]나, 약 40일간 9명의 조사자가 실시한 사토 고지의 조사 [佐藤浩司, 2002], 그리고 29일간 6명의 조사자가 실시한 반곡리생활제조사 [김호걸, 2006: 22]와 비교할 때 민박의 살림살이조사는 보다 긴 기간 동안 보다 적은 인원들이 생활밀착형 조사형태로 수행하였다. 단, 2006년 조사 [1, ①, 2]에서는 현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박 연구자는 3명만이 참가했지만, 이듬해부터는 민박 학예연구사 1~2명과 연구보조·촬영담당 1~3명이 한 팀을 이루어 2~3개월 동안 현지에 머무르면서 조사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지역민속조사와 연동되어 수행되었다. 민박 학예연구사·연구원(+촬영) 2~3명으로 구성되는 지역민속조사팀이 먼저 조사지에 들어가서 8~10개월간 체제조사를 하게 되는데, 살림살이조사는 그 중간에 시작된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지역민속조사팀 전원 혹은 일부가 새롭게 착임한 연구원·촬영담당자와 연계하면서 진행한다. 살림살이조사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조사자에게 공개해줄 수 있는 피조자가정의 선정에서 의뢰, 수락까지의 일련의

- 준비작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 기록·촬영해야 하는 상당한 인내를 요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 22 구입시기는 ‘입수시기’를 기록하기 위한 질문항목이었을 것이다. 조사표=살림살이 목록의 항목은 반곡리생활재보고서(‘생활재현황’ 표)에서 <22>에 이르기까지 조사자에 의해 여러 번 수정·변경되었다. 최근 살림살이민속지 <22> 목록의 항목은 ‘일련번호/명칭/수량/사용자/입수시기/입수자/입수형태(구입·증여·제작·대여·기타)/입수처(구입처·증여처)/가격/상표/보관/특징’ 순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항목뿐만 아니라 수량을 세는 방법조차 일련의 살림살이민속지에서 동일하지 않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량’이었던 것이 이후에 ‘주수량’, ‘부수량’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같은 ‘그릇’이라도 각각의 개수대로 세었는지, 혹은 종류별(같은 보관장소)로 세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따라서 각 가정의 살림살이 총수를 비교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23 이 외에도 60세 이상이나 기억력이 좋고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과 같은 점도 고려되었다.
- 24 지역민속의 해 사업의 민속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도를 단위로 농촌과 어촌 각각 한 곳씩 선정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시민속조사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살림살이조사가 이루어졌던 가정의 생업은 대부분이 농업 또는 어업이다.
- 25 조사자였던 심일종은 이 문제를 자각하고 있었다 [8, ⑦]. “현재 즉 ‘지금 여기’에서 호호하며 활동하는 인간들의 행위와 생각,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기록하고 연구” [⑦, 12쪽] 하고자 한 와지로(今和次郎)의 고현학(考現學)이 민박의 살림살이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한 심일종에 의하면, “어떤 마을의 삶에 대한 민속지를 작성”하고 “누구의 삶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누구나(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걸어가려 하지 않는 길” [⑦, 13쪽, 인용문 중 괄호는 필자에 의한 함의(이하 같음)] 과 같은 살림살이조사를 거듭하고 논의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6 2012년부터 도시민속조사에서는 ‘다문화’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민속지를 간행하고 있다. 같은 해에는 “‘화교 아빠와 한국인 엄마’로 구성된 가정” [⑩, 12쪽], 2013년에는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필리핀) 부인 및 자녀로 구성된 가정 [⑪]이 대상이 되었다. 단, 피조사가정으로 <19>를 선정한 것은 예외적의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가정’으로 조사대상가정의 형태를 정한 후 약 5개월 동안 20여 회에 걸쳐 조사를 의뢰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가정이 조사에 응한 까닭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성격이 된 자녀에게 “가족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부부가 결심했기 때문이다. 시택과의 갈등이나 이혼 등을 경험한 <19>가정이 조사대상이 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 27 여기서 ‘토착화’란 일본의 생활재 조사연구가 ‘한국민속학의 사상적 전통과 방법론적 관례 속에서 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28 민박에 의한 일련의 민속조사가 갖는 의의를 “국가가 행하는 ‘서비스’”이자 “한국민속학연구 및 발전을 위한 자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민박의 조사자도 있다 [(5), 260쪽].
- 29 이 외에도 2008년 도시민속조사를 수행한 민박의 조사자는 “다양한 문화를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이건욱, 2008: 267] 된 현재 상황에서 한민족의 기층문화=민속이라 여겨지던 제사가 제사를 지내는 노인들로부터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쁘네 이런거 시키기 싫다”, “사회는 변했다” [268]고 설명되기에 이르렀음을 보고한 바 있다.
- 30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즉, ‘마을민속지’의 조사·집필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을의 민속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곳에서의 조사경험도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민속지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의 사람보다 “전문연구자”를 적극 투입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한양명, 2015: 152].
- 31 1960~70년대에는 대학교 학과명으로 ‘家庭학’ 과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家政학’으로 표기하는 듯하다. 1947년에 창설된 ‘대한家政학회’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는 2006년에 ‘일상생활·일상성·생활과학’을 테마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32 도시재개발로 인해 단독주택에서 재개발지역 아파트로 이주하는 가족이 어떻게 생활재를 분류·처리하는지 자세히

- 밀착조사하며 생활공간의 재편이라는 문제를 검토한 강석훈의 연구는 일본 생활제조사와 민박의 살림살이조사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2011]. 이주에 따른 생활제의 폐기·존속은 경제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기능보다는 가족관계의 지속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보유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흥미로운 지적 [64] 도 시사적이다.
- 33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는 1971년 10월 23·24일에 국제민속학학술회의 '전통과 민속학의 현대적 방향', 1972년 2월 9일에 제1회 민속학 토론회 '민속학의 전환적 과제', 같은 해 6월 4일에는 제2회 민속학 토론회 '민속학의 대상' 등을 개최하였다 [金泰坤, 1984: 43·44].
- 34 김태곤의 현재학이 갖는 계몽주의적 사상에 관해서는 입장혁 [2013] 을 참고할 것.
- 35 김태곤의 현재학에 대해서는 남근우 [2003] 와 임재해 [200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 36 도시민속학의 지배적인 논리에 따라 예를 들어 벨런타인데이 등을 '도시'의 세시풍속이라 본다면 '시골'처럼 도시와는 별개의 사회에는 이러한 민속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관점은 마을에는 도시에는 없는 독특하고 오래된 민속이 있다는 것을 암묵리에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민속학의 논의를 주도해 온 임재해는 최근 페이스북 [2012], 스마트폰 [2013] 을 현재학적 시점에서 논하고 있어 주목된다. 논의의 방식은 좀 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익숙한 것이 된 인터넷 등 온라인상의 인간관계나 그 문화, 즉 민속을 "현실문화" [2012: 183] 로 인식하고 대상화하는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37 '지역'이라는 틀에 대해 주영하는 농업사회에서 "지역성"은 "중요한 기준"이(였)지만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였다 [2001a: 259]. 특히 지금의 식문화에서 지역성이란 "상업성으로 담보" [2001b: 343] 되는 것에 불과하다.
- 38 보통 사람들이 기록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은 한국 아카이브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곽건홍, 2011; 심성보, 2011; 임진희, 2011]. 그동안 "정부 시책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했던 아카이브학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거의 하지 않았다 [곽건홍, 2011: 6·28]. 그러나 "자본주의적 일상성 속에 숨겨진 억압적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일상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곽건홍, 2011: 9·10].
- 39 단,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연구는 주거, 가족관계의 현재 및 근대 이후의 변화과정을 알아내는데 주 목적을 두었지만, '민중생활사' 연구는 급속히 변모한 20세기를 살아온 "역사 없는" "민중"의 "친숙한 삶" [박현수, 2005: 11~13] 을 하루라도 빨리 기록하는 일에 최대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민중"이란 "가까운 이웃"을 뜻하며 계급적인 개념이 아니다 [함한희, 2008: 16].
- 40 민박은 네팔(2011)과 베트남(2011·2012)의 혼례문화, 중국·베트남의 상장례문화(2012)와 같이 타문화를 대상으로 한 '해외민속조사'를 수행해 왔다 [연보, 2012: 2013]. 그러나 2013년부터는 '물질문화'로 관심이 이동되어 [연보, 2014; 강경표, 2014: 120], 같은 해에 '청바지'를 주제로 영국 런던(London), 독일 부텐하임(Buttenheim),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LA(Los Angeles), 인도 뭄바이(Mumbai)·칸누르(Kannur), 일본 구라시키(倉敷) 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전 '청바지' (2014.10~2015.3)를 개최했다. 전시 첫날(10월 15일)에는 물질문화, 특히 청바지에 대한 문화인류학 연구를 주도해온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다니엘 밀러(Daniel Miller) 등에 의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너무도 "명백" (evident)하고 "아주 흔하며" (ubiquitous), "당연한" (taken for granted)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 "보려고 하지 않는" (blind) [Miller and Woodward, 2007: 337] 것들 중 하나인 청바지를 통해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글로벌한" [Miller and Woodward, 2007: 336] 것 사이를 움직이는 현대문화에 주목하는 밀러의 조사연구 [Miller and Woodward, 2007; 밀러, 2014] 에 대한 민박의 큰 관심은 "추억에 머물지 않는 '현재의 민속' " [연보, 2012: 4], " '지금 여기' 를 담은 민속" [연보, 2013: 5] 을 통해 '현재', '지금 여기' 를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것들을 대상화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참고로 2014년 '세계물질문화조사'의 주제는 '소금'이다.

참고문헌

- 강경표, 2014, 「국립민속박물관 물질문화 현지조사」,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논문집, 『물질문화 연구와 박물관』.
- 강석훈, 2011, 「재개발 이주민의 생활제 분류와 집 존속관—화성시 동탄면 방교 3리 타향살이 경험자의 C가(家)를 사례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물질문화진흥공 석사논문.
- 강정원, 2003, 「민속학과 현대사회, 도시」,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편, 『한국의 민속과 문화』 7.
- , 2006, 「성탄절」,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한국기록학회 편, 『기록학연구』 29.
-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6, 『국립민속박물관 50년사』.
- 김광억, 1996, 「총론」,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김만태, 2009, 「'짜장면'의 토착화 요인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50.
- 김문경, 2013, 「한국 유희문화의 대전환과 그 의미—노래주점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57.
- 김선풍 외, 1996,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서울: 집문당.
- 김정미, 2003, 「아파트 주거문화의 실태와 변화—평촌 신도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석사논문.
- 金泰坤 편저, 1984, 『韓國民俗學原論』, 서울: 시인사.
- 김호걸, 2006, 「들어가는 말: 생활제의 정의와 김명호 씨댁 생활제 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사보고서) 충남 연구군 금남면 반곡리: 김명호 씨댁 생활제 조사보고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남근우, 2003, 「'민속'의 근대, 탈근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38.
- 문화체육관광부 편, 2012, 『한국의 종교현황』.
- 민속학회 편, 1999(1994),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 밀러, 다니엘, 2014, 「물질문화와 청바지 연구」, 『청바지 Blue jeans』,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박현수, 2005, 「생활의 기록과 역사를 보는 원근법」,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편, 『어제와 오늘: 한국민중 80인의 사진집』, 서울: 현실문화연구.
- 박환영, 2011, 「도시민속 연구의 방법과 영역」,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54.
- 심정보, 2011, 「일상 아카이브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편, 『국제한국학연구』 5.
- 염원희, 2013, 「크리스마스의 도입과 세시풍속화 과정에 대한 연구—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국학진흥원 편, 『국학연구』 22.
- 윤택립, 2004, 「해방 이후 한국 부업의 변화와 여성의 일—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편, 『가족과 문화』 16-3.
- 이건욱, 2008, 「도시민속조사에 대한 경험의 공유」, 『민속학연구』 23.
- 이기태, 2013, 「1970년대 한국 민속학의 민과 민속학—두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57.
- , 2015, 「(토론문) "민속문화의 해"와 지역민속조사의 방향과 비전」, 『지역과 함께 한 국립민속박물관 10년, 성과와 반성』,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이와모토 미치야/김현정 역, 2015, 「'당연', '생활의문', '일상」, 일상과 문화 연구회 편, 『일상과 문화』 1, [岩本通弥2015 「"当たり前"と"生活疑問"と"日常"」日常と文化研究会『日常と文化』1] .
- 이정재, 2015,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성과와 반성」, 『지역과 함께 한 국립민속박물관 10년, 성과와 반성』,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임장혁, 2013, 「1960년대의 민속학과 '민'」,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57.
- 임재해, 1996, 「민속학의 새 영역과 방법으로서 도시민속학의 재인식」, 안동대민속학연구소 편, 『민속연구』 6.
- _____, 2005, 「20세기 민속학을 보는 '현재학' 논의의 비판적 인식」, 남도민속학회 편, 『남도민속연구』 11.
- _____, 2012, 「페이스북 공동체의 소통 기능과 정치적 변혁성」,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55.
- _____, 2013, 「스마트폰과 대중문화 현상의 문화유전자 인식」, 남도민속학회 편, 『남도민속연구』 27.
- 임진희, 2011, 「일상 아카이브즈 구축방안」,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편, 『국제한국학연구』 5.
- 전경수, 1990, 「물상화된 문화와 문화비평의 민속지론: 민속지의 실천을 위한 서곡」,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편, 『현상과 인식』 14-3.
- 정수진, 2015, 「한국 살림살이 연구의 전개」, 일상과 문화 연구회 편, 『일상과 문화』 1 [金賢貞2015「韓國におけるサルリムサリ研究の展開」日常と文化研究会『日常と文化』1].
- 주영하, 2001a, 「경기 북부의 식생활」, 『경기민속지—Ⅳ의·식·주편—』, 경기: 경기도박물관.
- _____, 2001b, 「경기 동부의 식생활」, 『경기민속지—Ⅳ의·식·주편—』, 경기: 경기도박물관.
- _____, 2006, 「서울 생활민속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역사박물관 편, 『도시역사문화』 5.
- _____, 2007, 「두 가지의 민속학과 의식주 연구—한복·한식·한옥에서 복식·음식·주거로—」, 국립민속박물관 편, 『민속학연구』 20.
- _____, 2008, 「(토론문)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역 생활재 조사의 특징과 향후 과제」, 『2008한국민속학자대회: 민속학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서울: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국립민속박물관.
- 천진기, 2002, 「보고 싶은 것과 보이고 싶은 것의 조화(調和)—『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전을 중심으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한국인의 일본문화 보기—』,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_____, 2007, 「민속박물관과 현대생활자료」, 한국민속학회 편, 『韓國民俗學』 45.
- 최운식·김명자·이정재·장장식·홍태한, 1999(1998), 『한국 민속학 개론』, 서울: 민속원.
- 최인학·김미영·배영동·표인주·나승만·황루시·윤광봉·황인덕, 2001,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서울: 민속원.
- 한양명, 2015,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지 작업에 관한 비평—제주·전북·경북·충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한 국립민속박물관 10년, 성과와 반성』,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함한희, 2002, 「부역의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선택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정신문화연구』 25-1.
- _____, 2008, 「생활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활용」,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편, 『영남학』 14.
- 허용호, 2015,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 내용의 비판적 분석」, 『지역과 함께 한 국립민속박물관 10년, 성과와 반성』,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정기간행물

- 국립민속박물관, 1994 『민속연보1993』 창간호.
- _____, 1995 『민속연보1994』 2.
- _____, 1996 『민속연보1995』 3.
- _____, 1997 『민속연보1996 개관50돌』 4.
- _____, 1998 『민속연보』 5.
- _____, 1999 『민속연보』 6.
- _____, 2000 『민속연보』 7.
- _____, 2001 『민속연보2000』 8.

- _____, 2002 『민속연보2001』 9.
- _____, 2003 『이전개관 10주년 민속연보2002』 10.
- _____, 2004 『민속연보2003』 11.
- _____, 2005 『민속연보2004』 12.
- _____, 2006 『민속연보2005』 13.
- _____, 2006.11 『민속연보2006』 14.
- _____, 2008 『민속연보2007』 .
- _____, 2008 『요약본 민속연보2007』 .
- _____, 2010 『민속연보2009』 .
- _____, 2011 『민속연보2010』 .
- _____, 2012 『민속연보2011』 .
- _____, 2013 『민속연보2012』 .
- _____, 2014a 『민속연보2013』 .
- _____, 2014b 『2014년 주요업무계획 국민과 세계로 다가가는 열린박물관』 .
- _____, 2015 『민속연보2014』 .

일본어

- 李京燁／金良淑訳 2003 「韓国民俗学界の研究動向と課題」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 2。
- 岩本通弥 1978 「都市民俗学の予備的考察—東京大田区での民俗調査を経験して—」 『民俗学評論』 16。
- _____ 1998 「『民俗』を对象とするから民俗学なのか—なぜ民俗学は『近代』を扱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か—」 『日本民俗学』 215。
- ギアーツ(Geertz, C.(Clifford).／吉田禎吾・柳川啓一・中牧弘允・板橋作美訳 1987 『文化の解釈学I』(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東京:岩波書店。
- 佐藤浩司 2002 「生活財調査—ものはなにをかたる—」 朝倉敏夫・佐藤浩司編著 『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くらし—』 吹田:千里文化財団。
- 商品科学研究所+CDI 1993 『生活財生態学Ⅲ 「豊かな生活」へのリストラ—大都市・地方都市・農村・漁村—』 東京:商品科学研究所。
- 南根祐 2009 「韓国民俗学の現在—『民俗』の文化財化と観光資源化を中心に—」 『日本民俗学』 259。

영어

- Miller, D. and Woodward, S. 2007. "Manifesto for a study of denim." *Social Anthropology* 15-3. Pp. 335~351.
- Monroe, Dan. 2005. "The Future of Ethnology Museums." Pp. 25~45. Lecture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국립민속박물관). April 26 [댄 먼로, 2005, 「민족학박물관의 미래」(강연회 자료집), pp. 5~21.] .

온라인문서 (알파벳 순)

- Coleman, Simon and Simpson, Bob. N.d. Glossary of Terms. Discover Anthropology. Available from: <<http://www.discoveranthropology.org.uk/>>. 2015/11/13.
- 국립국어원(발행연도 불명),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2015/11/18.
- 국립민속박물관(발행연도 불명), 『공식 웹사이트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index.nfm>>2015/11/12.

문옥표(발행연도 불명), 「연구과제 상세정보: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 <https://www.krm.or.kr/index.jsp>>2015/11/26.

표1 국립민속박물관 간행 민속지 목록

간행연도	민속지명
1984	『(國立民俗博物館叢書Ⅱ) 蝸島의 民俗—大里願堂祭篇—』
1985	『(國立民俗博物館叢書Ⅲ) 蝸島의 民俗—喪·祭禮, 葬制, 民間醫療, 民謠, 說話篇—』
1987	『(民俗博物館叢書Ⅰ) 蝸島의 民俗—堂祭(鎭里 및 食島), 家神信仰, 歲時風俗, 通過儀禮篇—』
1996	『(국립민속박물관총서 17) 어촌민속지—경기도·충청남도편—』
2002	『(국립민속박물관학술총서 33) 경남 어촌민속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사보고서)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민속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사보고서)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김명호 씨택 생활채 조사보고서』
2007	1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민속조사보고서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민속지』
	①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김성원씨택 생활채 조사보고서』
	2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민속조사보고서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민속지』
2008	3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심포마을) 바다를 메운 땅: 그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
	②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생활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심포마을) 강공진·김영남 부부의 살림살이』
	4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잣들, 산 위에 들을 일구다: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
	③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생활채) 오목이네 살림살이: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
	(5) 『(도시민속조사보고서 1) 아현동 사람들 이야기: 세상에 남의 일이란 없다』
	(④) 『(도시민속조사보고서 2/ 생활채) 김중호·김복순 부부의 물건이야기: 물건, 익숙한 과거와 낯선 현재를 연결하다』
	(6) 『(도시민속조사보고서 3) 변화變化 공감共感 소통疏通』
(⑤) 『(도시민속조사보고서 4/ 정릉 3 동 생활채) 김정기·조성복 가정의 살림살이』	
※제보자와의 문제로 인해 일반 공개되어 있지 않음.	
2009	7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한밤마을: 돌담과 함께한 부림의 터, 한밤마을』
	⑥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한밤마을 윤이실택 살림살이』
	8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 뱃불마을: 뱃불, 푸른 동해에서 피어나다』
2010	⑦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 뱃불마을: 유영춘·김순자 부부의 살림살이』
	9 『(2010 충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달빛 아래 신선이 노는, 월하성 마을』
	⑧ 『(2010 충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살림살이) 김영두·김연희 부부의 살림살이』
	10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동서남북 열린 길따라, 온산 1리』
	⑨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살림살이) 황인용·김희순 부부의 살림살이』
	(11) 『(도시민속조사보고서 5/ 민속지) 울산 달리 달동』
	(⑩) 『(도시민속조사보고서 6/ 살림살이) 울산 달동 유경수 박은경 가족의 살림살이』
2011	12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영광군 법성포』
	⑪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살림살이) 오정환택 살림살이』
	13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칠리안속 상금마을』
	⑫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살림살이) 백균·윤영남택 살림살이』
	<14>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도시민속조사보고서 7/ 민속지) 항구도시 목포 유달동 만호동』
<⑬>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도시민속조사보고서 8/ 살림살이) 목포 만호동 아리네 살림살이』	
2012	15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둔을, 새로운 내일 준비하는 마을』
	⑭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살림살이) 오경기·지순자 부부의 살림살이』
	16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민속지)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⑮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 살림살이) 박남식·서인옥 부부의 살림살이』
	(17) 『(도시민속조사보고서 9/ 민속지) 인천 차이나타운 淸館 淸관』
(⑯) 『(도시민속조사보고서 10/ 살림살이) 왕조용·김미라 가족의 살림살이』	

2013	18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지) 남해의 보석 물건마을]
	⑰ [조장남·김순점 부부의 살림살이]
	19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 민속지) 노를 저어 갔던 읍지, 다리 건너 만나다]
	⑱ [성윤용·김숙자 부부의 살림살이]
	<20> [(도시민속조사보고서 11/민속지) 조선소 도시, 거제] <⑲> [(도시민속조사보고서 12/살림살이) 이수범·로살리 가정의 살림살이]
2014	21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민속지) 두루미가 자는 민북마을 이길리]
	⑳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살림살이) 김두식·윤정숙 부부의 살림살이]
	22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민속지) 큰섬이 지켜주는 갈남마을]
	㉑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살림살이) 최병록·진숙희 부부의 살림살이]
	<23> [(2014 도시민속조사보고서 13/민속지) 모래위에 세운 터전 속초시 청호동] <㉒> [(2014 도시민속조사보고서 14/살림살이) 최숙정 할머니의 살림살이]

주 1: 외국을 대상으로 한 민속지나 영상민속지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 2: (민속지명 안) 목록 번호에서 ‘숫자’ 만 있는 것은 지역민속지, ‘동그라미 숫자’ 는 살림살이민속지, ‘소괄호’ 는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대상지역(道) 과 관계없는 도시민속지, ‘홀화살괄호’ 는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대상지역을 조사한 도시민속지를 의미한다.